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

(시편 37:1~40)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
제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미료 대신에 미원을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미풍을 사러 가서도 미원을 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곧 예수와 동일한 말로 습관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롯해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는 셈입니다. 오늘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

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직도 오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우리말의 구원자로 번역한다면 사람들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에 따라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은 각자 구원맞춤형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에 맞춰진 자가 아님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한다면 유대인들은 엉뚱한 구원의 개념에 예수님을 사용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신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려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은 굳이 종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추진력이 바로 구원을 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에너지는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향해가든 그것은 삶에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닌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종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악인의 형통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의인만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악인의 구원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9~10절, 18~19절, 35~3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하며 오직 의인의 형통만이 영원하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의인됨의 증거는 곧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은 구원을 못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과의 관계에서 악인과 의인은 구분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구분된 뒤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배설물을 담고 있으면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마음 채움입니다. 이 마음 채움이 구원과 관계하는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악인을 생각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피아 보스라면 자신의 이권을 훔쳐가려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자신을 악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악인으로 여깁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악인으로 취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됨과 악인은 내 안에서도 날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Daily Baptism)것을 말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그릇이지만 이조자기나 고려청자처럼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담음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오천만원 투자해서 십억을 버는 성공하는 투자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이 마음을 채운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과 같은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들에게는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채움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대해 믿음이 작동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일상적 삶에서 끊임없이 표현되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마음 채움이기 때문에 종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직장에 나가야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 채움을 위해서입니다. 즉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든지 비인격적 사물이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 채움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돈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곧 돈을 신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신은 곧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믿는 자는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데도 삶은 형통해 보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보며 시기와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의인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라고 믿는 의인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부러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곧 의인됨의 증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시기와 불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궁극적 주제는 의인됨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럽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부럽다면 아직 의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믿는 유일한 마음 채움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돈을 좋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를 걸고 살아온 결과 이 땅에는 사명이 없어졌습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도 동해안에 오징어나 명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땅에서 사명이 잡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판사들도 정의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위해 삽니다. 대학 총장도 학문을 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인류의 삶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조차도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사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에 먹혀서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래의 구원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구원을 베푸는 그리스도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악인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 채움을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찾으려 하는 자들이 악인이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을 가진 자들이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움이 구원이고 명예로 채움이 구원이고 결혼이 구원이고 자녀의 형통으로 채움을 구원으로 믿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다른 개념의 구원을 갖고 다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교회 안의 악인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원을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목회자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을 부러워하고 교인들끼리도 부자인 집사님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구원으로 삼았던 자들은 사업이 망할 때에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우러러보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우습게 볼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가치기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된 자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마음을 채울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도 돈 없으면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욕하고 부자들을 시기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저를 두고 민중들로 하여금 현실적 부족함에 반발하지 못하게 마음을 하늘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자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히려 마르크스가 말하는 민중이야 말로 이 세상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쁨보다 마음의 소원을 앞세웁니다. 마음의 소원이란 곧 이것을 가져야 마음 채움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생기겠다는 구원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야 기쁘고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먼저 여호와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원을 갖기 전에 먼저 여호와로 마음을 채워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넘쳐나는 기쁨이 이 땅을 향한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소원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져서 나를 채우고 넘쳐나는 부분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소원이 먼저가 아니고 기쁨이 먼저입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의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릇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믿고 정의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게 하실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무병장수나 자녀의 형통 등을 구원의 개념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병자를 고치신 것 또한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음을 수집하는 분으로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 관심을 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엉뚱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럽다면 아직 의인됨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은 얻었을 지라도 아직 고아의 체질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악인과 의인의 종국을 말씀하신 시편을 통하여 의인됨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 삶에 일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